



함께 배우며 자라는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금 인류 사회의 변화는
세계화, 서구화, 도시화로 정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도시화는 '지방 소멸'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지방 소멸은 학교 교육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저출생까지 겹치며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
학교와 학급의 규모도 함께 작아진다.
그렇다면 작은 학교는 과연 부정적이기만 할까?

손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1년쯤 함께 지내며 몇 번 그렇게 식사해 본 적이 있다.
느낌은 복합적이었지만, 꼭 나쁘지만은 않았다.

그렇다면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 일'은 어떨까. 더구나 직접 기른 재료라면?
어릴 때부터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경험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식량의 소중함, 음식을 만든 사람에 대한 감사, 내가 만든 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누군가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창녕 이방초 학생들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
재배의 즐거움, 수확의 성취, 그리고 그것을 음식으로 완성하는 과정까지.
작지만 '맛있는' 시도를 통해 알찬 교육을 만들어 가는 현장을 찾았다. <관련기사 12~15면>

시간이 시곗바늘을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시곗바늘이 시간을 움직이는 걸까?
대도시와 지방의 시간은 같은 속도로 흐를까?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찾아 수도권에서
함양으로 이주한 두 가족, 다섯 명의 학생이 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만의 속도로 배우고 놀며 더 어린이다워졌다.
배움이 꼭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부모들.
그들이 함양에서 찾은 교육의 가치는 무엇일까.
아이들의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담았다. <관련기사 16~19면>



목차

2026년 5월 | 113호

발행일

2026년 5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055-278-1788)

편집인

홍보담당관 박한규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최연희

주무관 김아경·김문영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주)큰그림

미래를 꿈꾸다

- 04 요즘, 아이**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더!
진해중 배태랑 학생
- 08 요즘, 교육**
칠판을 벗어난 수학 놀이터
김해 용산초 최일석 교사
- 12 요즘, 학교**
작지만 '맛있는' 학교의 반란
창녕 이방초등학교
- 16 즐겁지 아니한家**
학교를 따라 삶을 옮긴 두 가족

가치를 만나다

- 20 지금, 경남교육**
배움의 지도를 함께 그리다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 24 진로진학 나침판**
수시-학생부 교과전형
툇아보기
- 26 아이 안전**
5·6월 안전주의보
- 30 경남교육 체험기관**
화석의 숨결에서 우주의 신비까지,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재미를 더하다

- 34 PLAY 경남**
경남도립미술관 전시
- 36 경남교육 기네스**
경남 최초의 학교와 유치원
- 38 힐링필링 교육명소**
수십만 년의 시간이 겹겹이 쌓인
고성의 태고적 숨결

42 학교폭력예방 웹툰

정보를 즐기다

- 44 우리말 톡톡**
마음의 주소,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 46 마음상담소**
자녀의 학습 습관 형성과
부모의 역할
- 48 경남교육 캘린더**
- 50 도정 소식**
- 52 독자 이벤트 및 퀴즈**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더!

진해중 배태랑 학생,
링 위에서 단단해진 마음



체육관의 공기가 팽팽하게 조여오던 마지막 라운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진해중학교 2학년 배태랑 학생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상대의 움직임을 끝까지 읽어내며 집중력을 놓지 않은 끝에, 마침내 승리의 순간이 찾아왔다. 지난 3월 열린 2026 U15 국가대표 선발전 61kg급에서 우승을 차지한 배태랑 학생은 금메달과 함께 꿈나무 국가대표 자격을 거머쥐었다. 이제 그의 시선은 5월 카자흐스탄 국제복싱대회로 향하고 있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지금, 링 위의 하루는 더 단단한 책임감으로 채워지고 있다.

#1

끝까지 버티는 힘, 배태랑이라는 선수

배태랑 학생은 스스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복싱 선수”라고 소개했다. 그 한 문장에는 지금의 그를 만든 가장 중요한 힘이 담겨 있다. 바로 끈기다. 목표가 생기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 훈련이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태도는 배태랑 학생의 가장 큰 무기다. 국가대표 선발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화려한 결과보다 지난 훈련의 시간들이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기뻐고, 그동안 힘들게 훈련했던 시간들이 한 번에 떠오르면서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승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역시 마지막 라운드였다. 끝까지 집중하며 버티낸 시간이 결국 승부를 갈랐다. 경기 중 크게 긴장하지 않는 점도 실제 경기 운영에서 큰 힘이 된다.

“긴장은 되지만, 그 긴장을 집중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는 경기 전 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스스로를 준비시킨다. 상대의 움직임, 자신의 스텝과 펀치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몸보다 먼저 마음을 링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듯 스스로에게 말한다. “난 할 수 있다.”



01

#2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시간

배태랑 학생이 복싱을 시작한 계기는 의외로 단순했다. 운동을 좋아해 여러 종목을 고민하다가 복싱을 접했고, 직접 해보니 그 매력에 빠졌다. 처음 글러브를 끼었을 때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점 기술이 몸에 익고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질수록 재미도 커졌다. 그가 생각하는 복싱의 가장 큰 매력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노력한 만큼 결과로 나타나는 점이 가장 좋아요.

결국 스스로를 얼마나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하루 훈련은 늘 자신을 넘어서는 과정의 반복이다. 기초 체력 훈련과 기술 훈련, 실전 감각을 위한 스파링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다. 특히 가장 힘든 것은 체력 훈련. 하지만 그는 가장 힘든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물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다리가 무겁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면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말이 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복싱을 하며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망설임 없이 “멘탈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중심을 잡는 힘, 긴장을 집중으로 바꾸는 마음의 근육은 복싱이 그에게 준 가장 큰 가르침이다.

#3

진해중학교가 키운 단단한 기본기

배태랑 학생의 성장에는 진해중학교라는 든든한 토양이 있다. 그는 복싱부가 있는 학교에서 더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 진해중으로 전학을 왔다. 복싱 명문으로 알려진 진해중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기와 체력을 철저히 다지는 반복 훈련이다. 화려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본. 스텝 하나, 자세 하나, 호흡 하나까지 반복해 몸에 익히는 훈련 문화가 진해중 복싱부의 강점이다.

“진해중은 기본기와 체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반복 훈련을 철저히 하는 점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점 역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체계적인 지도였다.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고 끝까지 지도해주는 감독님과 선생님들의 코칭은 실력뿐 아니라 자신감까지 키워주었다. 학교의 훈련 시스템은 한 선수의 가능성을 실력으로 바꾸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진해중학교 복싱부의 반복 훈련 문화와 세심한 지도는 배태랑 학생이 국제무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4

가족의 응원, 더 큰 꿈을 향해

네 형제 중 셋째인 배태랑 학생에게 가족은 가장 큰 힘이다.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이유이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마음의 뿌리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가족의 응원은 “끝까지 해보자”라는 한마디였다. 국가대표 선발 소식을 전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축하해준 가족의 모습은 지금도 큰 책임감으로 남아 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더 분명해졌다. 카자흐스탄 국제복싱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더 멀리 세계적인 복서로 성장하는 것이다.

“실력뿐 아니라 인성도 갖춘 복서가 되고 싶습니다.

이 짧은 답변 속에는 배태랑 학생의 미래가 또렷하게 담겨 있다. 복싱을 통해 단련된 마음의 힘은 이미 링 밖의 삶까지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5

오늘의 반복이 세계 무대를 만든다.

오늘도 배태랑 학생이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진해복싱체육관에는 묵직한 샌드백 소리와 선수들의 스텝이 이어진다. 한 번의 잼, 한 번의 스텝, 한 번의 호흡 정리. 누군가에게는 반복처럼 보이는 하루가 배태랑 학생에게는 세계무대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미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소년은 이제 더 큰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끝까지 버티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자신을 믿는 단단한 한마디. “난 할 수 있다.” 그 다짐처럼 배태랑 학생의 다음 라운드는 이제 세계를 향해 힘차게 시작되고 있다.



02



03

- 01 링 위에서 코치와 마주 서서 복싱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
- 02 의자에 앉아 신발 끈을 묶으며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
- 03 훈련을 마친 뒤 링 옆에 앉아 숨을 고르며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

÷ × ✓ ≤ 칠판을 벗어난 수학 놀이터

김해 용산초등학교
최일석 교사

수학은 종종 교실 안에서 ‘포기하고 싶은 과목’ 1순위로 꼽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과 문제 풀이 위주의 결과 중심 수업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은 점차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간다.

하지만 여기, 수학을 ‘두려운 대상’에서 ‘즐거워 탐구 대상’으로 탈바꿈시킨 교실이 있다. 칠판과 문제집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도구를 통해 아이들 각자의 보폭을 맞춰주는 김해 용산초등학교 최일석 교사의 이야기다. 그는 맞춤형 디지털 수업을 설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12월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을 수상했다. 기술의 차가움 대신 따뜻한 기다림이 존재하는 최일석 교사의 ‘수학 놀이터’를 들여다보았다.



÷ 추상적 개념의 벽을 허무는 × 맞춤형 도구

최일석 교사가 디지털 도구를 수업에 도입하기로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교실 현장의 목소리에 있었다. “선생님, 분수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라며 추상적인 개념의 벽 앞에서 헤매는 아이와 “저는 다 풀었는데요”라며 지루해하는 아이. 최 교사는 이 엄청난 학습 속도의 격차를 줄이고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수학 수업’을 만들고 싶었다. 교사의 직관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개별적인 맞춤형 학습 환경이 절실했다.

이러한 치열한 고민 끝에 그가 찾아낸 해답이 바로 ‘에듀테크(디지털 도구)’였다. 그는 곧바로 경상남도교육청 플랫폼 ‘아이톡톡’과 ‘똑똑수학탐험대’ 등을 교실에 적극적으로 들여왔다. 효과는 놀라웠다. 평면적인 공식에 갇혀 있던 도형들은 수학 공학 도구 ‘알지오매스(AlgeoMath)’를 통해 생명을 얻었다. 연필로 억지로 그리는 대신 화면 위에서 직접 도형을 조작하고 변을 움직여보며 성질을 탐구할 때 아이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에듀테크: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 교육에 정보통신기술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교육

*알지오매스(AlgeoMath):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는 수학 탐구용 소프트웨어





01

✚ 실수할 자유,

✕ 에듀테크가 만들어낸 '기다림의 시간'

최 교사는 디지털 도구가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한다. 종이 학습지는 틀리면 지우개로 박박 지워야 하지만, 디지털 화면에서는 실 패해도 쉽게 지우고 여러 번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에듀테크가 아이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다.

학습 데이터는 실시간 대시보드로 교사에게 전달된다. 진도가 느리거나 개념을 헷갈리는 아이가 있으면 최 교사는 즉각 다가가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정답을 쥐여주는 대신 부족한 개념 영상을 확인하게 하거나 맞춤형 보충 문항을 제공한다. 기술이 단순 채점을 대신해 준 덕분에 교사는 아이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정교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교실은 어떻게 변했을까. 실제 연구 결과, '특목수학'을 활용한 학생들의 수학 흥미와 효능감 등 정의적 영역 점수는 86.2점으로 일반 수업 집

단(77.0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제 아이들은 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답을 맞힌 개수보다 '다시 시도한 횟수'로 칭찬받는다. 기기 활용 초기, 기초가 부족해지거나 게임만 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학부모들도 스스로 태블릿을 켜고 과제를 해결하는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평가도 축제가 되는 교실,

✕ 스스로 찾는 성취감

최 교사가 꼽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탐구한 뒤 모둠별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러닝페어'다. 학생들은 *오조봇(Ozobot)을 활용해 '여행하고 싶은 도시의 자율주행 코스'를 짜보고, 경로 간의 길이를 비

*러닝페어: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전시물을 만들어 프로젝트 학습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공유하는 행사

*오조봇(Ozobot): 색(컬러) 기반 명령으로 로봇을 움직이며 코딩 원리를 체험하는 교육용 코딩 로봇

례식과 정수비로 나타냈다. 통계 자료를 활용해 수학 여행지 포스터를 만들며 수학이 삶 속에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이 모든 과정은 '톡톡폴리오'에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딱딱한 평가가 하나의 축제로 변했고,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의 주인공이 되었다. 수학을 정말 싫어하던 한 아이가 '비밀 암호 풀기' 활동에 몰입해 마침내 암호를 해독한 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라며 환하게 웃던 순간. 최 교사는 그때 '배워서 남 주자'는 자신의 교육 신조가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온기,

✕ 그리고 새로운 탐험

아무리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도 교실을 지탱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성장의 방향을 잡아주는 정서적 연결과 가치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교사의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가끔 기기가 고장 나거나 로그인 오류로 진땀을 뺀 때면 '예전처럼 수업할까?'라는 유혹도 들지만 최 교사는 그 과정을 이겨내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수학 시간에서 증명된 '디지털 도구의 힘'을 이제 과학 수업으로 확장한다. 올해 'C.P.R. LIVE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주변의 생태계를 데이터와 연결하고, 아이들이 환경 문제의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이들의 배움이 '주어진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질문을 해결하는 여정'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최일석 교사는 막막함을 느끼는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다정한 응원을 남겼다.

수학은 정답을 맞히는 경주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세상을 그려 가는 하나의 탐험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 에듀테크는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이들 곁으로 가까이 데려다주는 통로입니다. 선생님들의 용기 있는 시도가 교실의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 01 최 교사가 칠판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 02 전자칠판 화면을 보며 학생이 수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
- 03 학생이 직접 만든 학습 결과물을 들고 발표하고 있는 모습
- 04 톡톡수학을 활용하고 있는 장면



02



03



04



창녕 이방초등학교 전경



직접 가꾼 재료로 요리하는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

작지만 '맛있는' 학교의 반란,

텃밭에서 식탁까지,
아이들이 배우는
생생한 삶의 지혜



창녕 이방초등학교

조용하던 창녕의 한 초등학교. 최근 이곳 복도에는 연필 소리 대신 경쾌한 도마 소리가, 차분한 공기 대신 침샘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 들어찼다. 교실을 벗어나 앞치마를 두른 전교생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수확하고, 우리 고장의 식재료를 활용해 다채로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 맛보는 창녕 이방초등학교의 이야기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소규모 학교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열광하는 '요리'를 공교육에 전면으로 끌어들이는 '글로벌 셰프 푸드학교'. 이 파격적이고 트렌디한 특색 교육은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외부의 시선을 끌어모으며 '작은 학교 살리기'의 매력적인 해법이 되었을까? 이방초등학교 송영하 교사를 만나 작지만 알찬 교육의 묘미를 들어보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요리가 가르쳐준
협력과 성장

이방초등학교가 '직접 가꾼 재료로 요리하기'를 특색 교육으로 삼은 배경에는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연결고리가 자리하고 있다. 창녕은 양파의 시배지이자 전국 최대 마늘 생산지다. 여기에 제철 농산물을 기를 수 있는 학교 텃밭이 있었고, 마침 학교 바로 옆에 창녕군과 한 외식 전문 기업이 손잡고 추진한 청년 외식 창업 프로젝트 '산토끼 밥상'이 들어서며 요리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 훌쩍 높아졌다. 이 모든 환경적 요소를 포착한 영양 교사의 제안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노

고가 더해져 지금의 특색 교육이 탄생했다. 아이들은 매년 봄이 되면 학급별로 기르고 싶은 작물을 직접 선택해 모종을 심는다.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꾸어 수확한 농작물은 직접 다듬어 요리 시간의 훌륭한 식재료로 쓰인다. 송영하 교사는 이 과정이 곧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식물의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관찰하며 과학과 실과 교과의 내용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합니다. 재배의 즐거움부터 수확의 성취감까지, 흙을 만지며 얻는 정서적 만족감은 교과서 밖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배움이지요.”



- 01 이정연 영양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요리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 02 학생들이 직접 만든 딸기 모찌
- 03 학생들이 재료를 손질하며 요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 04 학생들이 완성된 요리 결과물을 함께 확인하며 공유하고 있다.
- 05 교실에서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이정연 영양교사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요리가 가르쳐준
협력과 성장

요리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종합 예술이다. 전교생이 학년군별로 모여 요리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음식 재료를 나누며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몸으로 익힌다.

“요리를 하면서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다 같이 완성한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라는 한 학생의 해맑은 소감처럼, 요리 시간은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 즐거운 소통의 장이 된다.

물론 모든 요리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정연 영양교사는 “음식이 까맣게 탄 적은 없지만 타르트나 토르티야(또띠아)처럼 일정한 모양이 나와야 할 때 반죽이 질게 되거나 모양이 망가지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교사는 선불리 대신해주지 않는다. 아이들 곁에 머물며 스스로 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조언할 뿐이다. 실패를 딛고 요리를 완성해 내는 경험은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훌쩍 키워준다.

요리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는 또 있다. “평소 밥을 먹을 때 버섯이 나오면 다 빼고 먹었는데, 요리 시간에 직접 버섯을 손질하고 요리해서 먹어보니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라는 한 아이의 고백처럼, 편식 교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것이다. 직접 기른 양파와 마늘의 아리고 매운 향에 거부감을 느끼던 아이들은 채소를 노릇하게 구워 장아찌를 담그며 매운맛이 기분 좋은 단맛으로 변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

는 순간, 채소와 친해진 아이들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다. 나아가 서툰 솜씨로 만든 요리를 가족에게 대접하고 긍정적인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쑥쑥 자라났고 학교생활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다.



산토끼의 멜로디와
어우러진 100년 학교의
눈부신 부활

이방초등학교의 매력은 요리 수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민동요 ‘산토끼’를 작사·작곡한 고(故) 이일래 선생이 재직했던 곳으로 ‘산토끼 노래학교’라는 뜻깊은 별칭을 가진 이곳은 산토끼 합창단과 방과 후 피아노 교실 등 풍부한 예술 교육을 자랑한다. 지난 방학에는 8주간의 특목 영어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차별화된 교육 과정은 뚜렷한 수치적 변화로 증명되었다. 2025학년도 20명이던 학생 수는 꾸준한 전학 문의와 입학으로 이어져 현재 26명으로 늘었다. 작년에 서울과 대구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 역시 높은 만족도 속에서 매일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이방초는 멈추지 않고 더 큰 내일을 그린다. 앞으로

지역 특산물 연구소와 협력해 조리법을 전문적으로 고도화하고, 학생들의 활동 결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등 마을과 함께 크는 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로 100회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 깊은 학교. 최근에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알록달록한 교실과 리모델링된 산토끼 도서관까지 갖추며 완벽한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크기는 작지만 가장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매력적인 이방초등학교로 오세요!”

인터뷰 말미 송영하 교사가 남긴 다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초대에 경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미래가 오롯이 담겨 있었다.

초록이 가장 짙어지는 계절, 아이들의 웃음도 가장 멀리 번진다. 함양 마천초등학교 운동장을 뛰노는 다섯 아이의 발걸음에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경기도에서 살던 두 가족이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삶의 방향을 바꿨다. 익숙한 도시를 떠나 지리산 자락 함양으로 내려온 선택. 그 중심에는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나고 싶었던 부모의 간절함이 있었다. 김소람 씨와 김진경 씨는 현재 한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각각 두 딸 이서아(11), 슬아(8) 양과 세 아들 윤성현(11), 성호(9), 성준(7) 군을 함께 키우고 있다. 처음에는 교육을 위해 시작된 이동이었지만, 이곳에서 두 가족은 학교를 넘어 삶의 방식까지 다시 배우고 있다.

학교를 따라 삶을 옮긴 두 가족

함양에서 함께 자라는
다섯 아이



월요일을 기다리는 아이들

도시에서의 학교생활은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였다. 학원, 예체능, 영어, 태권도까지 부족함 없이 채워 넣었지만 아이의 표정은 달랐다. 특히 김소람 씨의 첫째는 일요일 저녁만 되면 “별써 월요일이야?”라며 학교 가는 일을 부담스러워했다. 학교생활은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부모의 눈에는 즐거움보다 피로가 먼저 보였다. 김진경 씨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첫째의 사교육비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둘째, 셋째까지 이어질 교육비 부담은 현실적인 고민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지 않으면 뒤쳐질 것 같은 불안’이었다.

그 불안을 내려놓게 한 곳이 바로 마천초였다. 두 가족 모두 처음 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인상을 “따뜻했다”고 기억한다. 아이들이 억지로 가는 학교가 아니라 스스로 가고 싶어 하는 공간, 학부모를 경계하지 않고 먼저 인사하는 아이들, 교장실 문까지 활짝 열어두는 학교의 분위기가 부모의 마음을 움직였다.



왼쪽부터 이서아(11), 윤성현(11),
윤성준(7), 이슬아(8), 윤성호(9)



왼쪽 세 아들 엄마 김진경 씨,
오른쪽 두 딸 엄마 김소람 씨

책보다 먼저 몸으로 배우는 학교

마천초의 가장 큰 매력은 아이들이 몸으로 배우는 교육이다. 월요일 마을 탐방 수업과 올해 새롭게 시작된 ‘산·들·강 프로젝트’는 특히 만족도가 높다. 아이들은 길 없는 산을 오르고, 진흙에 넘어지고, 나무에 올라가며 자연을 교과서 삼아 배운다. 김진경 씨는 특히 둘째가 1학년 때 경험한 ‘월요일 마을 탐방 수업’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주말이 끝난 월요일 아침이면 학교 가기 싫어지기 마련인데, 아이는 오히려 월요일을 기다렸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마을 곳곳에 핀 꽃 이야기, 개울에 발을 담구고 돌을 주웠던 이야기 등 조잘 조잘 하고픈 말도 많아졌다. 그렇게 아이들은 마을 곳곳을 걸으며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며 자연과 친해졌다. 도시에서라면 비용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쉽지 않았을 활동들이 이곳에서는 학교 일상이 된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김소람 씨는 “학원 전기요금만 보태줄 바엔 아름다운 자연과 훌륭한 선생님들의 1:1 교육이 훨씬 좋다”고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이 먼저 말하는 “우리 학교가 좋아”

무엇보다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증명하는 건 아이들의 표정이다. 아이들은 함양 생활의 좋은 점으로 하나같이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꼽았다. 철봉을 타고 산을 오르며 노는 일이 즐겁다는 서아, “전교생 모두와 신나게 논다”고 말하는 성현, 쉬는 시간이 30분이라 모래놀이를 할 수 있어 좋다는 성호의 말에는 지금 학교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넓은 하루를 주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즐거움은 이어진다. 다섯 아이는 마당 있는 집과 집 앞 계곡, 맑은 공기 속에서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며 논다. 도시에서는 시간을 내야만 가능했던

자연이 이곳에서는 일상이 되었다. 아이들이 “학교가 좋아”, “함양에 와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특별한 한 가지가 아니라, 하루 전체가 놀이와 배움으로 이어지는 삶 그 자체에 있었다.

- 01 텃밭수업하는 윤성호(9)
- 02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와 놀이를 넘나들며 스스로 배우는 하루
- 03 함양에서 함께 살아가며 일상 속 배움을 쌓아가는 시간



01



02

다섯 남매처럼, 함께 자라는 집

두 가족의 아이 다섯은 이제 한집에서 먹고 놀고 배우며,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부르는 진짜 식구가 됐다. 처음 남편들의 인연으로 알게 됐고, 첫째 아이를 5일 차이로 낳으며 육아의 시간을 함께 통과했다. 그 시간 속에서 쌓인 신뢰는 함양 정착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됐다. 남편들이 도시에서 일하며 주말에만 함양에 오지만 두 엄마는 함께해서 그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 아이들도 서로를 사촌처럼 대하는 수준을 넘어 정말 다섯 남매처럼 살아간다. 큰 아이들이 함께 동생들을 챙기고 돌본다. 삼형제만 있던 집에 여자 형제들이 생기자 분위기도 달라졌다. 와일드하던 형제가 다정하게 “오빠가 도와줄게”를 말하게 됐고, 형제 중심이던 관계는 배려와 돌봄의 폭이 넓어졌다. 무엇보다 엄마들에게는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된다. 아이가 아픈 날, 한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돌봐주는 공동육아의 힘은 타지 정착의 불안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작은 학교가 가르쳐준 가장 큰 가치

함양에서의 시간은 아이들도 조금씩 바꾸고 있다. 등교를 힘들어하던 아이는 이제 월요일 수업을 기다리고, 학원 스케줄에 쫓기던 삼형제는 자기 속도로 공부하고 놀며 더 밝아졌다. 형의 그늘에 있던 둘째는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의젓함 속에 감정을 숨기던 막내는 이제 마음껏 울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부모들은 그것을 “아이들이 더 어련이다워졌다”고 표현했다. 두 가족이 이곳에서 얻은 교육의 가치는 결국 하나로 모인다. 나의 속도를 찾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힘이다. 작은 학교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서로 다른 학년과 성향을 품어주며, 경쟁보다 관계를 먼저 배우게 한다. 도시에서는 얻기 어려웠던 ‘함께 자라는 경험’이 이곳에서는 매일의 일상이 된다.

언젠가 아이들이 성장해 바쁜 삶에 지칠 때가 오더라도, 함양에서의 기억은 오래 남을 것이다. 천왕봉을 바라보던 아침,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계곡으로 달려가던 여름, 전교생이 한집에 모여 놀던 오후, 그리고 월요일을 기다리게 만든 학교. 배움이 꼭 책상 위에서만 자라는 것은 아니다. 함양의 작은 학교는 두 가족에게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아이의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채워 넣는 데서가 아니라, 아이의 속도로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움의 지도를 함께 그리다,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학생들의 꿈과 적성이 저마다 다르듯 배움의 길 또한 다채로워야 합니다. 이제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시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을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통해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 어떤 제도일까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 선택



이수기준 충족 시
과목 이수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 시 졸업 인정*

*학년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기준 유지

왜 지금, 고교학점제가 필요한가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신장
적극적 진로 설계



“각자가 진로·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성취도를 평가해요.”

경쟁이 아닌
성장을 위한 교육



“과목 이수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이루어져요.”

책임 교육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과목을 개설해요.”

교육과정 다양화
더 넓은 배움의 기회 제공



경남의 고교학점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경상남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학교 현장 안착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리집 운영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과목 안내 자료, 학점 이수 인정 기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 학생, 양육자, 교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학교 내에 개설되지 않은 소인수·심화 과목을 인근 학교 간 협력을 통한 학교연합(대면) 공동교육과정과 아이톡톡을 활용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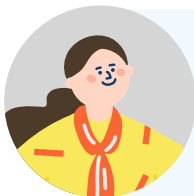
읍·면 지역 학생에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우선 수강권을 부여하고, 경남온라인학교를 통해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의 과목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생은

-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 자녀가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의 진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더 많은 과목과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누리집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남온라인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 일과시간 내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 눈에 살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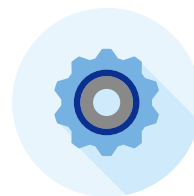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든든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어떤 도움을 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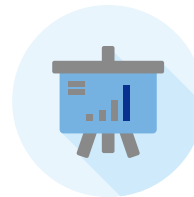
정책 안내 및 맞춤형 연수

- 제도 변동 내용을 반영한 다양한 안내 자료 개발 및 보급
- 학생의 진로와 과목 선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누리집 탑재
- 학생, 양육자 대상 설명회 및 교원 연수 지원
-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 운영 사례 발굴 및 확산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강좌 개설을 위한 강사 인력풀 구축 및 학교 매칭 지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학교 밖 교육 기관 발굴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학교 간 클러스터 운영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고교학점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보완

-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질적 보완 방안 모색
- 교육부 및 유관 기관과의 환류를 통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제도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청-고등학교-대학-지역사회 기관 협력체계 구축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와 함께 열어갈 교실의 내일!

단위학교
운영 부담 경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서 구축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 지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교육부 공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시청각 자료 개발 및 보급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경남온라인학교 등을 통한 과목 선택권 보장 및 과목 선택권 격차 해소

학생 스스로 길을 찾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이 그 따뜻한 동행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수시-학생부 교과전형 툰아보기

경남 지역의 대부분 학생들은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대부분 학생들은 수시 전형 중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호에서는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과전형 변화
내신 중심에서
서류·활동까지 확대

수능최저 중요
합격의 핵심은
수능최저 충족

준비 전략
교과·수능·서류
균형 있는 준비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대학에서 여전히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하지만 점차 그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한양대와 비수도권 지역의 경북대, 광주교대 부산대 등이 그 예입니다. 교과 전형에서의 서류 평가는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와 유사하게

정성 평가하거나, 교과 활동 중심의 정성 평가를 하면서 교과 이수 현황을 반영하는 대학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학생부 교과전형에 주력하더라도 과목 선택이나, 수업 참여, 탐구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과 전형으로 공과대학에 지원하면서 물리학이나 화학 대신 내신 관리가 비교적 수월한 과목만 이수하거나, 경영·경제학과를 희망하면서도 부담이 적은 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에 서류평가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상위권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에서는 교과전형에서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대학에서는 최저 기준 적용 여부를 달리해 전형을 이원화하기도 합니다. 즉 교과전형은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

수능을 준비하고, 서류 평가에 대비해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며, 면접 평가 등 다양한 전형 요소에 맞게 준비해야 선택 가능한 대학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교과전형이 다양한 전형 요소를 반영하는 방면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합격 요인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충족여부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진학하기를 선호하는 수도권 주요대학과 국립대학의 경우 대부분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수시전형을 지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시 6회 지원을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고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입에서 전형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과전형은 내신 성적, 정시는 수능이라는 공식이 비교적 분명했지만, 이제는 그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병행하고,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수험생들은 한 가지 요소만으로 승부를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형 간 경계가 허물어진 만큼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는 것은 대입 전략을 잘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로 미리보는

5·6월 안전주의보

우리가 살펴봐야할 다섯 가지 통계

따뜻한 바람과 함께 학교 곳곳에
아이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해지는 5월과 6월.
체육대회와 야외 활동이 훌쩍 늘어나는 만큼,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이 시기에 집중됩니다.
아이들의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켜주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안전 통계와 예방 수칙을 미리 살펴봅니다.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 사고도 함께 늘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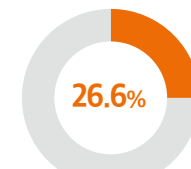
지금, 다섯 가지 신호를 확인하세요.

※ 1년 중에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

(2025년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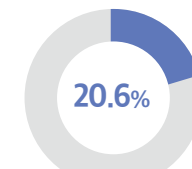
고등학교 사고
연중 최다 발생 기간



무리한 동작 금지
신체능력 과신은 금물!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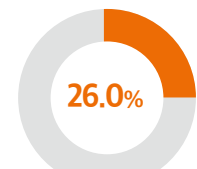
휴식·청소시간 사고
연중 최다 발생 기간



보행 질서 지키기
바닥 미끄럼 주의!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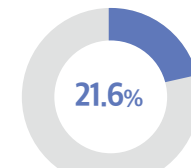
특별활동시간 사고
연중 최다 발생 기간



안전 수칙 숙지하기
장비는 제대로, 안전은 철저히!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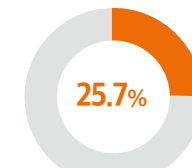
강당(체육관) 사고
연중 최다 발생 기간



주변 환경 확인
안전거리 확보, 주변 기구 점검

05

운동장·놀이시설 사고
연중 최다 발생 기간



바닥 상태 점검
올바른 이용 습관이 먼저

기억하세요!

- 안전은 습관입니다.**
반복된 실천이 사고를 줄입니다.
- 친구를 배려해요.**
질서를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 위험은 미리 확인**
작은 확인이 큰 사고를 막습니다.

안전은 반복 실천으로 **'습관'**이 됩니다

2026 다안전해 경남교육 공모전 수상작 소개

아이들이 직접 그린 '안전한 학교', 빛나는 상상력을 만나다.



안전은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아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 아이디어를 나누는
'2026 다안전해 경남교육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따뜻한 시선과 재치 있는 상상력이 담긴
웹툰 작품들이 모였으며,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의미 있는 안전 메시지를 전합니다.



수상작 갤러리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피어난 안전 이야기



대상

폭염 속 몸의 마지막 신호

대방중학교 3학년 김O민, 권O윤

폭염 속 우리 몸의 위험 신호를
재치 있게 담아, 온열질환의 위험과 대처,
몸의 변화에 대한 주의를 일깨웁니다.



최우수상

안전봇과 함께하는 안전학교 만들기

충무공초등학교 4학년 조O준



최우수상

위험은 내 곁에

도산중학교 3학년 한O진, 윤O우

전체 수상작은 QR코드를 통해
경남교육청 공식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탐구중심수업

화석의 숨결에서 우주의 신비까지, 스스로 질문을 찾는 곳



“과학이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면,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해 보세요.
단순히 어려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왜 그럴까?’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 체험교육과 교원 연수를 기획·운영하고 있는 박현준 연구사의 말이다. 그가 소개하는 과학교육원은 단순한 관람 시설이 아니다. ‘화석의 숨결에서 우주의 신비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체험 중심의 과학관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과학대회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맞춤형 교원 연수로 일선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까지 높여주는 명실상부 ‘경남 과학교육의 중심 기관’이다. 교과서 속 복잡한 공식 대신 1,000mm 주망원경으로 직접 별을 관측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내 손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곳. 경남 아이들의 머릿속에 빛나는 질문을 심어주는 과학교육원의 든든한 청사진을 박현준 연구사에게 들어보았다.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과학적사고



박현준 연구사가 아이들과 모래 실험을 진행하며 탐구를 이끌고 있다.

정답을 쥐여주는 대신,
‘탐구 촉진자’가 되다

박현준 연구사가 체험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질문 중심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저희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학생의 생각을 밖으로 끌어내는 ‘탐구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박 연구사의 말처럼 이곳의 해설사와 연구사들은 아이들에게 선불리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일일과학 체험교실에서도 아이들이 관찰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가설을 세우고 해석하도록 돕는다.

물론 흥미를 끌어내면서도 교육과정과 연결되는 깊이 있는 학습을 설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박 연구사를 비롯한 과학교육원 식구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흥미와 교육적 가치의 균형’, 그리고 ‘안전성과 현장 적용성’을 두고 끊임없이 머리를 맞댄다.

광활한 우주부터 첨단 AI까지, 눈앞에 펼쳐지는 미래 교육

과학교육원은 일선 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1m 대형 천체망원경과 원격관측시스템은 물론,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직접 실물로 제작해보는 ‘발명·메이커 교육시설’ 등 최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중 박현준 연구사가 가장 자신 있게 꼽는 핵심은 4월 말 새롭게 단장하는 천체관측실 교육이다. 1,000mm 주망원경과 원격관측시스템을 활용해 단위 학교에서도 실시간으

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기관을 직접 연결했다. 이와 더불어 ‘과학의 날 행사’를 통해 다채로운 체험으로 과학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과학 교육 포럼’을 열어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수업 혁신을 이끌고 있다.

아이들의 호응성이 쏟아지는 ‘과강스(과학바강스)’와 천체투영관은 물론, 손바닥만 한 초소형 위성을 직접 다뤄보는 ‘큐브위성 교육’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박 연구사는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체험은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자라난다”고 설명했다.

- 01 우주 과학 전시 공간
- 02 기계 장치를 통해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 03 교사가 학생의 탐구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천체관측교육



미래과학교육



학교와 지역을 잇는 시너지, 교실의 공기를 바꾸다

과학교육원의 생생한 체험은 학교 정규 교과 과정과 만났을 때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한다. 이론으로 배운 개념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하며 학습의 몰입도와 지속성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박 연구사는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운 학교들을 언급하며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과학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이동과학관 ‘알아보카’와 찾아가는 천체관측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현장의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돌아오고 있다. 학생들은 “과학이 재미있어졌다”며 반응하고, 교사와 학부모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박 연구사가 꼽은 가장 몽클했던 에피소드 역시 한 학생의 생생한 감탄사였다.

“평소 과학에 큰 흥미가 없던 아이였는데 실제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한 뒤 ‘별을 직접 보니까 과학이 정말 재미있어졌어요’라며 스스로 질문을 던지더군요. 이런 아이들의 변화가 교실로 확산되고, 선생님들이 이를 수업에 다시 적용하셨다는 피드백을 들을 때 우리 기관의 가치를 깊이 체감합니다.”



미래를 향한 로드맵, 그리고 다정한 초대

지식의 단순 암기보다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시대. 과학교육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 관측-분석-설계-공유로 이어지는 ‘전 과정 참여형 과학교육 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다. 향후 원격천체관측 데이터를 분석하는 심화 프로그램과 우주과학 및 공학적 설계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프로젝트형 AI 기반 탐구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이 그리는 명확한 로드맵이다.

어려운 과학책을 펴고 한숨짓는 아이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곳으로 향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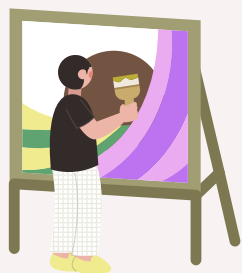
“화석의 숨결에서 우주의 신비까지, 다채로운 체험 속에서 과학은 더 이상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즐거운 탐구가 될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과학교육원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현준 연구사가 경남의 아이들에게 띄우는 든든하고 다정한 초대장이다.

일상에 질문을 던지는 예술 산책

경남도립미술관 전시

예술은 일상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익숙한 풍경을 색다르게 보게 만든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우리 곁에는
세계적인 거장의 숨결과 동시대 예술가들의
치열한 고민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햇살 좋은 5월, 도심 속에서 예술적 영감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경남도립미술관의
두 가지 특별한 전시를 소개한다.
화가의 캔버스를 넘어 흙과 불로 빚어낸
거장의 도예 작품부터 개인과
공동체의 경계를 묻는 동시대 미술까지.
미술관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경계를 묻다.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깊은 단
절과 고립을 경험한다. 경남도립미술관 1층과 2층에서
진행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을>은 바로 이러
한 동시대적 고민에서 출발한다. 전시는 국가, 제도, 가
족 등 전통적인 공동체의 틀을 넘어 개인의 신체와 기억,
삶의 조건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
색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이은희, 오화진, 안유리 등 국내
외 작가 14명(팀)이 참여해 회화, 설치, 사진, 영상, 사운
드 등 51점의 다채로운 매체를 선보인다. 1전시실에서는
자전적 서사와 신체 감각을 통해 자아를 짚어보고, 2전
시실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목소리들을 현재로 소
환한다. 이어 3전시실에서는 인간 중심 이후의 세계를 상
상해 본다. 작품 하나하나가 던지는 묵직한 질문들을 따
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와 '우리'를 둘러싼 사회 구조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전시 기간 2026. 3. 18. ~ 6. 28.
- 전시 장소 경남도립미술관 1, 2층

거장의 손끝에서 피어난
흙과 불의 예술,
MMCA 이건희컬렉션:
피카소 도예

세계적인 입체주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 우리는 흔히
그의 화려한 회화 작품을 떠올리지만, 말년의 피카소
는 흙과 불이라는 원초적 재료에 매료되어 '도예'라
는 새로운 창작의 장을 열었다. 경남도립미술관 3층
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MMCA 이건희 컬렉션:
피카소 도예>는 화가나 조각가라는 명성을 넘어 도
예가로서 피카소가 보여준 새로운 예술적 면모를 집
중 조명한다. 이번 전시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
장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피카소 도예 작
품 97점을 국립현대미술관 최초로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
다. 전시실에서는 여인, 동물, 얼굴 등 피카소의 작품
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주제들을 도자라는 입
체적 매체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평면의 캔버
스를 벗어나 흙을 빚고 유약을 발라 완성한 도자들은
거장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실험 정신을 고스란히 전
해준다. 피카소가 남긴 유쾌하고도 경이로운 97점의
도예 작품들을 가까이서 마주하며, 20세기 거장과 같
은 호흡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자.

- 전시 기간 2026. 3. 18. ~ 6. 28.
- 전시 장소 경남도립미술관 3층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좋다. 도심 속 미술관에서 세
계적인 거장의 숨결을 느끼고, 동시대 작가들의 치열
한 시선과 마주하는 경험. 5월의 맑은 날, 가까운 경남
도립미술관으로 예술 산책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작
품이 건네는 조용한 이야기 속에서 일상을 살아갈 새
로운 영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① 진주교회가 설립한 기독교유치원 원생들과 교사들



② 1928. 의신유치원 보육생들



③ 1907년. 진주초등학교 대한제국 황태자 책봉 기념사진



④ 경남최초의 특수학교가 1950년 6·25 전쟁으로 소실된 모습



④ 현 경남헤림학교

경남 최초의 학교와 유치원

경남 최초의 유치원

🍎 밀양유치원. 1910

1910년에 설립된 밀양유치원*은 부산·울산을 제외한 경상남도 최초의 유치원으로, 1913년 세워진 경성유치원과 함께 대한민국 유치원 교육의 시초로 평가된다. 1904~1906년생 아동들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당시 유아교육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놀이와 생활습관, 한글 및 기초예절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는 공립교육 이전 단계의 유아 사교육 실험장으로서 한국 근대교육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전통은 밀양 지역 유아교육의 모태가 되었다. *2015년 설립된 밀양유치원과는 다른 곳임

🍎 진주기독교유치원. 1916 - ①

서부 경남 최초의 교회인 진주교회는 1905년 의사인 커를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다. 교회 설립 이듬해인 1906년 안동남학교와 정숙여학교를 세워 무료로 가르쳤고 1907년엔 서점(진양서관)

도 열었다. 진주기독교유치원은 진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유치원으로, 매클라렌 의사의 부인 제시가 1916년 개원하여 운영했다. 진주기독교유치원이 설립된 지 11년 만에 안란에 목사 명의로 당국에 인가 신청을 하여 1928년 5월 22일 배돈병원 원장 부인이 초대원장에 취임하였다. 1941년 7월 2일 진주기독교유치원의 경영권을 호주선교회로부터 진주교회가 인수받아 운영하다가 1947년 10월 19일 화재로 인한 소실로 폐쇄하게 되었다.

🍎 의신유치원. 1929 - ②

1929년 4월 문창교회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된 유치원. 1929년 마산 최초의 교회인 문창교회가 설립한 의신유치원은 경남 동부 지역에서 가장 이른 기독교계 유치원이다. 호주 장로교 선교사 아이다 맥피(Ada McPhee)가 1933년 월영유치원 설립에도 참여했으며, 시인 김수돈이 1942년 이곳에서 교편을 잡은 기록이 남아 있다.

경남 최초의 학교

🏫 진주초등학교. 1895 - ③

진주초등학교는 전국에서 두 번째, 도내에서는 최초로 개교한 근대학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이다.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공포된 소학교령에 따라 1895년 9월 진주관찰부(현재 경상남도청)가 위치한 진주성에 경상우도(右道)소학교로 개교하였다. 단발령이 내려져 의병이 봉기해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함에 따라 개교 2개월여 만인 11월 휴교하였다가 1896년 1월 교명을 진주공립소학교로 변경하여 재개교하였다. 진주초등학교는 개교 이래 1906년 공립진주보통학교, 1911년 진주공립보통학교, 1919년 진주 제1공립보통학교, 1938년 진주 제1공립심상소학교, 1941년 진주 제1공립국민학교, 1942년 진주길야공립국민학교, 1945년 진주 중앙공립국민학교, 1950년 진주 중앙국민학교, 1996년 중앙초등학교, 2011년 진주초등학교 총 12번이나 교명이 바뀐 만큼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를 같이 걸어왔다. 2025년 2월 기준 총 125회, 27,10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경남 최초의 특수학교

🏫 경남헤림학교. 1969 - ④

1969년 3월 19일 청각장애 1·2·3학년 각 1학급으로 경남국민학교(현 경남헤림학교)를 개교하였다. 전국적으로는 사립 특수학교가 먼저 설립되었지만, 경남은 공립 특수학교가 먼저 설립되었다. 그 후 중학교 과정은 1980년 경남헤림학교에 정신 박약부와 청각 장애부를 각 1학급씩 개설한 것이 시작이고, 고등학교 과정은 1989년 경남헤림학교에 정신 박약부와 청각 장애부를 각 1학급씩 개설한 것이 시작이었다.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은 1986년 경남헤림학교, 경남천광학교, 진주해광학교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공과는 1998년 진주해광학교에 도예과와 원예과를 각 1학급씩 개설한 것이 시작이었다. 경남헤림학교는 정신지체와 청각 장애를 동시에 교육하고 있어서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1985년 6월 1일 경남헤림학교에서 청각 장애를 분리하여 경남천광학교(현 창원천광학교)를 개교하였다.

수십만 년의
시간이 겹겹이 쌓인,

계절이 바뀔 때면 어떤 도시는 스스로 간직해 온 거대한 시간을 조용히 꺼내어 놓는다. 고성이라든가 그런 곳이다. 흔히 고성이라 하면 거대한 공룡의 자취를 먼저 떠올리지만, 이 도시가 품은 시간의 결은 그보다 훨씬 깊고 다채롭다. 1억 년 전 자연이 새겨놓은 태고의 지층부터, 푸른 구름 아래 잠든 옛 왕국의 기억,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지친 일상을 다독이는 잔잔한 바다까지.

고성의 태고적 숨결

고성의 풍경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수십만 년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 완성된 역사책과 같다.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일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고성의 세 가지 명소를 걸으며,
그 속에 담긴 시간의 숨결을 만나보자.

Goseong



01



02

- 01 상족암 풍경
- 02 상족암
- 03 송학동 고분군
- 04 해지개 둘레길

자연이 기록한 거대한 시간의 지층 상족암군립공원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해안가에 자리한 상족암군립공원은 중생대 백악기의 생태계가 고스란히 멈춰 있는 공간이다. 파도가 육지를 깎아내고 비바람이 다듬어 낸 기암절벽, 그리고 켜켜이 쌓인 퇴적암 층리는 대자연이 억겁의 세월 동안 기록해 온 시간의 지층 그 자체다. 바다를 곁에 두고 조성된 해안 데크 길을 걷다 보면, 넓은 암반 위에 선명하게 찍힌 공룡 발자국 화석들을 마주하게 된다. 교과서 속 활자가 아니라, 어른 얼굴만 한 발자국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걷는 순간 아이들의 상상력은 수천만 년 전의 과거로 단숨에 도약한다. 특히 파도에 침식되어 뚫린 동굴이 마치 밥상 다리 모양 같다고 하여 붙여진 '상족(床足)암'의 비경은 압도적이다. 해변 가까이 펼쳐진 암반 위를 거닐며 째조름한 바닷바람을 맞다 보면,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 인간의 시간은 얼마나 찰나인지 스스로 질문하게 된다.

소가야의 시간을 마주하다, 송학동 고분군

상족암에서 아득한 자연의 시간을 경험했다면, 고성을 한가운데 자리한 송학동 고분군에서는 인간이 일궈낸 역사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 고분군은 고성읍 무기산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구룡 주변에 있는 7기의 가야 무덤들이 모여 있는 사적지이다. 도심 한복판, 일반 가옥들과 이웃하듯 어우러진 푸른 고분 사이의 부드러운 산책로를 걷다 보면 역사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거대한 무기산 1호분을 비롯해 봉긋하게 솟아오른 고분들은 화려한 장식 없이도 고요한 위엄을 뽐낸다. 최근에는 맑은 하늘과 푸른 구룡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려는 발걸음도 끊이지 않지만, 이 공간이 주는



03

04



진짜 매력은 그 고요함 속에 담긴 옛사람들의 흔적이다. 아이들에게 이곳은 그저 걷기 좋은 공원이 아니라, 찬란했던 해상 왕국 소가야의 역사를 밟으며 스스로 상상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된다.

해가 지기 아쉬워 머무는 곳, 해지개 해안둘레길

거대한 자연과 역사의 시간을 지나온 여정은 잔잔한 일상의 공간에서 쉼을 얻는다. 고성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지개 해안둘레길'은 남포항에서 출발해 남산오토캠핑장, 해지개다리를 거쳐 구선창까지 이어지는 약 1.4km의 걷기 좋은 길이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지개다리'라는 이름에는 '거대한 호수 같은 바다 절경에 해 지는 모습이 아름다워 그림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절로 생각나게 한다'는 낭만적인 뜻이 담겨 있다. 바다 위로 반듯하게 놓인 나무 데크 다리를 걷다 보면, 호수처럼 잔잔한 고성의 바다가 여행자의 발걸음을 다정하게 안아준다. 다리 중간중간 놓인 벤치에 앉아 윤슬이 반짝이는 수면과 갯벌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시간. 특히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대에 이곳을 찾으면 차마 발길을 돌리기 아쉬운 황홀한 풍경이 펼쳐진다. 일상의 무게는 파도 소리에 씻겨가고, 마음에도 고요한 평정이 깃든다.

고성에서 배우는 것

고성의 풍경은 서두르지 않는다. 거창한 설명이 없어도 좋다. 수십만 년의 시간이 겹겹이 쌓인 고성의 길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교과서 밖의 살아있는 배움과 묵직한 위로를 동시에 얻게 될 것이다.

WEBTOON
학교폭력예방 웹툰

사고팔 수 없는 것 4화

- 글: 그림 지유나 -



“ 한 명이라도 기댈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가 내겐 작은 위안이 되었다. ”



-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

마음의 주소,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5월, 정확한 문장의 예의



5월의 국어 시간, 부모님께 드릴 감사 편지를 쓰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자못 진지합니다. 평소엔 스마트폰 화면 위로 짧은 초성이나 이모지만 띄우던 아이들이 펜을 잡고 정성껏 문장을 고르는 모습은 대견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진심이 어긋나지 않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지 맞춤법을 묻는 아이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부모님 병이 다 '낱길' 바란다고
쓰는 거 맞나요? 낱길인가요?"

"선생님, '어의'가 없다는 말,
감사 편지에 써도 돼요?
아빠가 저 때문에 어의없던 적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요."

아이들의 진심은 누구보다 뜨겁지만 종이 위로 옮겨지는 문장들은 가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려 합니다. 병이 '낱다'가

'낱다'가 되고, '어의없다'가 조선시대 '어의(御醫)'로 변신하려는 찰나, 아이들은 질문을 통해 그 흐름을 바로잡습니다. 맞춤법은 단순한 규칙을 넘어 내 마음이 상대에게 오해 없이 도착하게 돕는 '정확한 주소'입니다. 틀린 글자 하나가 때로는 진심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기도 하고 읽는 이의 몰입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을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모양입니다.

"너희의 귀한 마음이
중간에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춤법은 부모님이 너희의 진심을 더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게 담아놓는 길 같은 거야."

함께 고민하며 글자를 고쳐 쓰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문해력의 진짜 시작을 봅니다. 정성껏 매만진 이 편지들이 각 가정에 닿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행복한 5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말 돋보기

진심을 지키는 문법의 힘

◆ 정확한 문장이 주는 '신뢰의 힘'

맞춤법은 우리가 함께 지키는 글쓰기의 약속입니다. 이를 지킨 글은 읽는 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메시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반대로 잦은 실수는 글의 신뢰를 흐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쓰는 습관은 진심을 가장 분명하게 전하는 방법입니다.

◆ 자주 틀리는 '사랑의 맞춤법'

• 안 vs 않 위치와 결합의 차이

- '안': '아니'의 줄임말로, 용언(동사, 형용사) 앞에 쓰입니다. (예: 안 아프다)
- '않': '아니다'의 줄임말로, 용언 뒤에서 '-지 않다'의 형태로 쓰입니다. (예: 아프지 않다, 먹지 않다)
- * Tip: '안'은 용언 앞에서 꾸미고, '않'은 주로 '-지' 뒤에 쓰입니다.

• 바라요 vs 바래요 소망과 변색의 구분

- 바라요: 원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는 기본형 '바라다'에서 온 표현입니다. (예: 합격하길 바라요)
- 바래요: 색이 변하다(색바래), 누군가를 배웅할 때(바래다주다) 쓰는 표현입니다.
- * Tip: 일상에서는 '바래'가 익숙하지만, 글에서는 '바라요'가 더 정확합니다.

• 낱다 vs 낫다 생명과 회복의 구분

- 낱다: 아이를 태어나게 하거나, 어떤 결과를 가져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 낫다: 병이나 상처가 고쳐지거나, 이전보다 더 좋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 감기 얼른 나으세요)
- * Tip: '아기를 낱다', '병이 낫다'를 구분하세요. 건강을 빌 때는 '나으세요'를 사용합니다.

◆ 문해력을 높이는 단정한 습관

- 다시 읽기(퇴고): 글을 다 쓴 후에는 읽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소리 내어 읽어봅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어색한 문장이나 틀린 글자가 마법처럼 눈에 띄니다.
- 진심을 위한 한 번 더: 내 글이 오해 없이 전달되려면, 단어의 올바른 표기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헛갈리는 표현을 점검하는 습관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마음상담소 5월 상담기록지

자녀의 학습 습관 형성과 양육자의 역할



이달의
상담 주제

초등학생 아이가 숙제나 공부를 스스로 하기보다는 양육자가 여러 번 이야기해야 겨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데, 양육자가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됩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부모는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령기 이전과 이후의 아이 발달 변화 이해하기

꽃들이 곳곳에 만개한 계절입니다. 예쁜 계절에도 양육자들은 아이와 매일 ‘공부 전쟁’을 치르고 계시지요. “해라”와 “싫다(혹은 나중에)” 사이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는 모든 초등 양육자의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막상 내버려두자니 뒤처질까 불안한 그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능력’이라기보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 만들어지는 ‘습관’ 형성에 가까운 과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양육자는 관리하고 지적하는 ‘감독관’에서 기다려주고 지도하는 ‘코치’로 역할로 전환할 때 아이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작을 돕는 방법

그렇다면 양육자는 어디까지 도와주고,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설계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의 내용을 가르치기보다, “오늘 무엇을 할지”와 “언제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도와주십시오. 아이가 계획을 세울 때 “이걸 다 할 수 있겠어?”라고 물어보며 실현할 수 있는 분량을 조절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7시에 시작하자”라고 약속했다면, 7시 정각에 바로 소리를 지르기보다 ‘5분 전’ 예고제를 활용해 보십시오. “5분 뒤면 약속한 시각인데, 하던 거 정리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며 아이의 뇌가 준비하고 전환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먼저는 무조건 “이거 해”라고 하기보다 아이에게 선택지를 주십시오. 아이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수학 먼저 할래, 국어 먼저 할래?”, “지금 바로 시작하고 30분 일찍 쉼래, 아니면 10분만 더 놀고 정해진 시간에 끝낼래?” 두 번째 아이가 시작할 수 있도록 공부의 단위를 작게 쪼개어 주십시오. 아이가 공부를 미루는

이유는 ‘막막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 익힘책 다 풀어”가 아니라 “딱 3문제만 풀고 검사받기”처럼 막막함에 단계를 주어 시작의 문턱을 낮춰주십시오. 일단 시작하면 계속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성취와 경험

마지막으로 보상보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다 마친 계획표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체크 표시하는 등의 시각적 피드백은 아이의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공부했으니, 게임을 해”라는 보상도 좋지만, “오늘 계획한 걸 스스로 다 끝냈네? 기분이 어때?”라며 아이의 유능감을 말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보상보다는 성취감을 시각화해 보심이 자기주도 학습의 힘이 될 것입니다.

가끔은 양육자가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가 끝까지 미루다 숙제를 못 했다면, 학교에서 선생님께 꾸중을 듣거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불편한 경험’을 하게 두는 것이지요. 양육자가 미리 다 챙겨주면 아이는 스스로 챙겨야 할 이유를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오늘 계획한 일 중 단 10%라도 스스로 해냈다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책상을 펴고 앉는 모습이 정말 멋지더라”라는 한마디가 아이를 움직이는 큰 동력이 됩니다. 불편한 상황을 겪는 자연적 결과나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자연적 결과는 아이가 자기주도학습을 시작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자기주도학습은 모든 부모가 바라는 아이들의 학습 태도겠지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조금씩 아이의 습관을 만들어가시는 조금 넉넉한 양육자가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글. 정복순

경상남도가족센터 부모코칭전문가

2026
이달의 경남교육
행사를 소개합니다

- 창원도서관 ● 김해도서관 ● 마산도서관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미래교육원 ● 과학교육원 ● 진로교육원 ● 안전체험원 ● 수목문화관 ● 맛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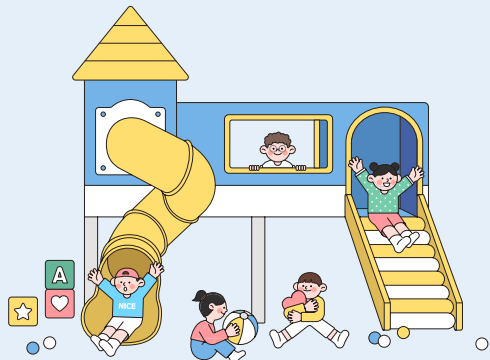
일	월	화	수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사항 안내사항 - 지면의 한계로 일부 행사만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공도서관 예약 통합예약 수목문화관 운영 안내 (5월 매주 평일 운영) 13:30~16:00 / 체험탐구관, 수학어드벤처관, 수북카페/ 평일 자유관람 (5월 매주 토 운영) 9:30~12:30, 13:30~16:00 / 체험탐구관, 수학어드벤처관, 수북카페/ 주말 자유관람 (5월 매주 일 운영) 09:30~12:30 / 체험탐구관, 수학어드벤처관, 수북카페/ 주말 자유관람 과학교육원 운영 안내 (5월 전체 운영/대체 휴무일, 매주 월요일, 부처님 오신 날 제외) 10:00~17:00 / 자유관람 -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4	5 어린이날 9:30~16:30 / 김해체험분원 / 행복한 동행,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9:30~17:00 / 미래교육원 / 어린이날 행사 9:00~16:00 / 진주체험분원 / 재미팡팡 신나는 과학축제	6
10	11	12	13
17	18 (~20일 까지) 9:30~17:00 / 김해체험 분원 / 6월 가족나들이 토요 생태체험 사전신청기간	19	20
24 부처님 오신날	25 대체 공휴일	26	27 15:00 / 책담 1층 해오름 / 영화 상영 <온워드>
31			

목	금	토
	1 (~31일 까지) 9:00~18:00 / 경상남도 교육청 스마트도서관 / 책드림과 우리 사이 (~29일 까지) 13:00~18:00 / 냉장서고 (김해시 동네책방) / 오늘, 동네 책방에서! (~31일 까지) 10:00~15:00 / 김해체험 분원 / 자연과 친구되는 유아 생태체험 (~29일 까지) 10:00~15:00 / 진주체험 분원 / 즐겁고 신나는 과학체험	2 9:30~12:30, 13:30~16:30 / 체험탐구관, 수학어드벤처관, 수북카페/ 2026. 경남수목문화관 어린이날 행사 14:00 / 해담 1층 해2 / 체험 <토요책동산> 11:00 / 책담 1층 꿈뜨락 / <아기돼지 삼형제> 15:00 / 책담 1층 꿈뜨락 / [재능기부 힐링 공연] <한음양상블 '피아노 듀오& 성악 듀오'> (매주 토 운영) 15:00 / 책담 1층 누리홀 / 공연 <댄싱 로봇 공연> (매주 토 운영) 11:00 / 책담 1층 다운누리(해오름 옆) / 체험 <AR 모래놀이> (매주 토 운영) 14:00 / 책담 2층 책고리 / [체험] <VR 스포츠 체험, 자연 힐링 체험> (~3일까지 운영) 10:00~16:00 / 진로교육원 / (어린이날행사)은가족진로체험
7	8 14:00~16:00 / 냉장서고(김해시 동네 책방) / 책방, 하루 체험 보석 방향제 캔들 만들기 10:00~17:00 / 진로교육원 / 신규진로 전담교사연수, 진로전담교사연수	9 (9일 이후 매주 토 운영) 10:00~12:00, 14:00~16:00 / 수목클리닉실, 수목상상실/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체험교실 (9일 이후 매주 토 운영) 10:00~12:00, 14:00~16:00 / SW교육체험실2실/ 가족과 함께하는 SW 체험교실 15:00 / 1층 세상을봄 / 뮤지컬 <갈라 콘서트> 9:30~12:30 /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 토닥토닥발명교실<학생반>, <가족메이커반> 10:00~12:00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 누구나 안전체험 프로그램 <교통·생활 안전>
14	15 	16 14:00~16:00 / 생의 한가운데(김해시 동네책방) / <루리, 작가와의 만남> (~17일까지 운영) 10:00~16:00 / 진로교육원 / 주말체험프로그램
21 	22	23 10:00 / 책담 2층 책벗 / VR토론동아리 <VR 포럼> 14:00 / 3층 무학전당 / 토요인문특강 <정대건 작가의 '농동적 동사로서의 사랑'>
28	29 10:00~16:00 / 진로교육원 / <꿈길 활용 연수>	30 19:00~21:40 /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 <토요천체관측교육> 10:00~13:00 / 경남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 가족단위 영양식생활체험 <키 쑥쑥, 몸짱 만들기>

경남에 이런 놀이터도 있어요 ‘공공형 키즈카페’

민간 시설 못지않은 최신 시설과 저렴한 이용료, 안전성까지 갖춘 ‘공공형 키즈카페’가 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진주시 성북동에 새롭게 문을 연 ‘별별하모놀이터’와 경남 최초의 공공형 키즈카페로 자리 잡은 창원군 ‘아이행복키움터’는 지역 사회의 소중한 복지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며 육아 부담을 더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주항공도시 꿈을 담은 진주시 ‘별별하모놀이터’

“선생님, 저 우주비행사 될래요! 이것 봐요~! 신기한 게 많아요~!”

우주비행사 옷을 입고 무전기를 만지며 노는 아이의 목소리가 한껏 상기돼 있다. 각기 다른 직업의 의상을 갖춰 입고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는 동안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았다. 우주항공 관련 테마 존이 눈에 띄는 이곳은 지난 2월 개관한 진주시의 공공 키즈카페 ‘별별하모놀이터’다. 진주시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에 조성돼, 개관 이후 지역 영유아와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별별하모놀이터는 연면적 477.84㎡ 규모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5개의 놀이 존을 운영하며 나이에 맞는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꼬마 우주 탐험대, 출발! 우주 연구소, 팡팡 신나는 우주, 반짝반짝 꼬마 행성, 무중력 우주 환경 등 테마별로 공간을 다양화했다. 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민 맞춤형 공간이자,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놀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이들과 단체로 방문한 진주예쁜아이어린이집 박미경 원장은 “아이들이 평소 접할 수 없던 놀이 콘셉트라 그런지 더 신기해하고 집중하며 놀이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서 위생이나 안전 면에서도 마음이 놓여 자주 찾게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경남 1호 공공형 키즈카페, 창원군 ‘아이행복키움터’

농촌 지역의 놀이 시설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창원군 ‘아이행복키움터’는 경남 최초의 공공형 키즈카페다. 2021년 3월 창원군청 사거리 인근 건물의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평일에도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 덕분에, 개소한 이후 5년이 넘도록 부모들의 찬사를 끌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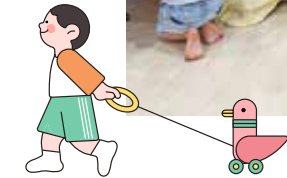
아이행복키움터 역시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오감 만족을 위해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직접 만지고 뒹굴어도 괜찮을 만큼 바닥과 계단이 안전하게 설계됐고, 모험 놀이, 그물 놀이, 블록, 동작 게임 등 6개 영역의 11개 놀이기구가 배치되어 있다.

이곳을 찾은 한 보호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집 근처에 아이가 땀 흘리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또, 또래 만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인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오길 잘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아이들 놀이공간만이 아닌 육아 공동체의 장으로

두 곳의 공공형 키즈카페는 놀이공간만이 아닌, 부모들의 ‘소통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창원군의 경우, 지역에 연고가 없는 귀농·귀촌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육아와 교육 정보를 주고받는 장소로 활용된다.

진주시의 ‘별별하모놀이터’ 또한 같은 건물 내에 공동 육아



나눔터와 장난감 은행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더욱 알찬 공간을 제공한다.

친환경 자재로 꾸며진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은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우고, 부모들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은 공공형 키즈카페.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이런 공공복지 자원이 앞으로도 많은 가족에게 즐거운 추억을 쌓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공공형 키즈카페 이렇게 이용하세요~!

구분	진주시 ‘별별하모놀이터’	창원군 ‘아이행복키움터’
이용 대상	진주시 주소지 등록된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 및 보호자	창원군 주소지에 등록된 0~8세 아동 및 보호자
이용료	2000원(보호자 1인 무료) 다자녀, 수급자, 장애인 등 무료	무료
운영 시간	화~토 9시 30분~17시 30분 / 1일 3회차 운영 (매주 일·월요일 휴관)	화~금 10시~18시 (매주 월요일 휴관) 주말 공휴일 9시 30분~17시 30분
예약 방법	진주시 통합예약시스템 (사전 예약제)	홈페이지, 전화 예약 및 현장 접수
준비물	영유아 미끄럼 방지 양말 착용 개인 물병, 등본 (3개월 이내 발급)	첫 방문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아이종아 4월 호 예고편 영상 댓글 이벤트

4월 여러분에게도 말보다 먼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주진희

말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쑥스러울때는 손편지를
한 자 한 자 적으며
마음을 표현합니다.

박상우

노래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박진영

저는 그림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색과 선으로 마음속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그릴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나 상상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보는 사람과도 작은 공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

원지연

조카들에게 부족한 실력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림을 그려준적이 있습니다.

- 예고편 댓글 이벤트 당첨자분에게는 개별 연락드렸습니다.

매달 <아이종아 경남교육> 소식지 예고편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른쪽의 큐알코드를 통해 예고편 영상을 시청한 후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문화상품권을 증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이종아 경남교육
5월 호 예고편 영상



2026년 5월 호

독자퀴즈



아이종아 경남교육 5월 호 웹진을 집중해서 읽은 독자들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 [요즘, 교육] 최일석 선생님의 수학수업에서 평면적인 공식에 갇혀 있던 도형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수학 공학 도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아이톡톡 ② 똑똑수학탐험대
③ 알지오매스 ④ 오조봇
- [경남교육 체험기]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 박현준 연구사가 '탐구 촉진자'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교육 방식은 무엇일까요?**
① 정답을 빨리 알려주는 교육
②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
③ 질문 중심의 사고 확장 교육
④ 어려운 공식을 암기하는 교육
- [경남교육 기네스] 1895년 '경상남도 소학교'로 개교하여 도내 최초의 근대학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로 기록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단답형)**
- [즐겁지 아니한가] 경기도에서 함양으로 이주한 두 가족의 다섯 아이가 현재 즐겁게 다니고 있는 지리산 자락의 학교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답형)**

5월 호 독자퀴즈 정답자는 6월 호에 발표됩니다.

4월 독자퀴즈 정답과 당첨자

- 4월 호 정답 1. ③ 학생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 2. ③ 예술을 직접 해보는 곳
3. 진영금병초등학교 4.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 4월 호 당첨자 창원 웅남초 정채원 학생 / 창원 중앙고 이우영 학생 / 하동 진교초 송시연 교직원

독자퀴즈 정답 보내실 곳

QR코드를 통해 정답과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을 기재해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제출 기한 2026년 5월 15일까지
- 제출방법 QR코드를 통해 답안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 문의 055-278-1788

* 유의사항 :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 정보가 누락될 경우 정답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답안작성 QR코드



경남교육 소식을 다양하게 즐겨요!

아이종아 경남교육 웹진에서 생생한 학교 현장의 이야기와 깊이 있는 교육 정책을 만나보세요.
경남교육 SNS를 팔로우 하시면 주요 소식과 행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움이 놀이가 되는 곳! 경남교육 '체험'기관

경상남도 곳곳에 있는 다양한 체험기관을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예약하세요!



복잡한 검색은 이제 그만!
공연, 견학, 체험처 정보가 한 곳에!

지도에서 확인하고
QR코드로 바로 예약하세요!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예약포털



경상남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



*기관 운영 및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